

2020 Spring

Into the village

지구촌나눔운동
봄호 소식지

 지구촌나눔운동
Global Civic Sharing

Contents

- 03 포토에세이
일상에서 시작하는 변화
- 04 생생 현장이야기
언제 어디서나 생명을 구해요!
- 06 GCS 사업소개
수공예 산업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 10 나눔이야기
모두에게 선물 같았던 시간
- 14 GCS News
- 18 비하인드 스토리
한국복지대 베트남 하노이 봉사단 후기
- 19 모금캠페인
지구촌나눔운동 해피빈 모금함
- 20 후원신청서

일상에서 시작하는 변화

글 미얀마 사업소 현정훈 간사

미얀마의 날씨는 여름, 우기, 건기의 세 계절뿐입니다.
어느덧, 건기를 지나 바람에 온기가 더해지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주민의 대부분이 농민인 미얀마에선
계절이 변한다는 것은 곧 바쁜 시기가 도래함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늘 미소로 반겨 주시는 마을 주민과 함께
오늘도 자립을 위해 천천히 걸어갑니다.

바쁘고 고된 일상의 한 편을 내주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고자
오늘도 우리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언제 어디서나 생명을 구해요!

생생 현장이야기
 위급한 순간,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태국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

지구촌나눔운동은 태국 방콕에서 삼성생명과 함께 '소외계층 여성 대상 이동진료소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일환으로 AED(심장제세동기)를 보급하고 응급처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14일부터 18일, 24일까지 총 3회에 걸쳐 방콕시청 강당에서 마을 지도자와 보건인력, 삼성생명 태국지사 임직원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AED 사용법과 CPR(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태국 내 통계자료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의 절반 이상이 병원 도착 전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심정지 발생 후 6분 안에 적절한 응급조치를 실시할 경우 환자의 생존율을 약 3배 가량 높일 수 있어 CPR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은 지역사회 내 심혈관질환 응급환자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숙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촌나눔운동은 삼성생명과 함께 방콕 시내 보건의로 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며,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본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삼성생명이 함께합니다.





수공예 산업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GCS 사업소개
베트남 수공예 산업 가치사슬 강화사업

외면받는 수공예품

하노이 인근에는 도자기, 라탄, 실크 등 질 좋은 수공예품을 생산하는 다양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공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수공업자의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일정한 가격 기준 없이 관광객 대상으로 판매되거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수출하는 등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부족하다 보니 소비자들도 점점 발걸음을 끊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주민들을 위해 수공예 산업 가치사슬 강화사업은 베트남 수공예품들의 디자인과 상품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통판로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사업 담당자들이 주목한 해결 방법은 바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고 유통구조를 간소화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었는데요. 베트남 수공업자와 수공업계의 소득증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해외 판로를 확대하고, 수출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생산과 디자인역량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만든다.

그리고 하노이 내에 디자인센터(VKDC)를 건립하여 한국의 디자인 전문가가 상주하며 베트남의 관련 기업, 개인 디자이너, 수공업자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 컨설팅 및 수공업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수공업품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역량 있는 디자이너를 선발하고 수공업자와의 협력을 도모했습니다.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제품 디자인 및 제품 브랜딩 교육 등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들과 협력하여 의류, 우드, 라탄, 스키프, 식기세트 등 다양한 제품들을 양산했습니다.

끝은 시작의 다른 이름

지난 2월 14일, 지구촌나눔운동과 함께 3년간 진행된 '베트남 수공예 산업 가치사슬 강화사업'은 베트남에서 스스로 지속할 수 있도록 이양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양식을 통해 한-베 디자인 센터는 베트남 무역 진흥청(VIETRADE)으로 이양되었으며, 온라인 커머스(수아트리)는 무역진흥청 산하의 정보기술센터(INTEC)로 이양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보기술센터(INTEC)는 이양받은 수아트리 사이트를 활용하여 일본, 미국 유럽 등으로 베트남 수공업품 시장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센터(VKDC)는 수공업자의 소득증대와 수공업계의 가치 사슬 강화 그리고 베트남 기업의 디자인 능력 중진을 위한 거점으로 계속 활용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지켜봐 주세요.



“ 지구촌나눔운동과 함께 만든 훌륭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잘 활용하여 앞으로도 양국의 디자인 교류와 베트남 디자이너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의 모든 파트너와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무역진흥청의 부 바 푸(Vu Ba Phu) 청장



르완다 나루바카에서 전해온 봄처럼 따뜻한 나눔이야기.

모두에게 선물 같았던 시간

농촌 주민 자립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인 르완다 나루바카 지역에는 40개의 자조그룹이 있습니다. 2018년 9월경, 자조그룹 '트위테짐베레 나가소지' 참여자인 샤카 이노센트씨의 아이가 실수로 펜 뚜껑을 삼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목에 걸린 펜 뚜껑을 제거하는 수술은 한화로 약 5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40개 자조그룹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십시일반 모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약 16만 원은 이노센트 씨에게 전해졌고, 아이는 무사히 수술을 받아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자조그룹 대표자 회의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정기적인 나눔을 실천하자' 하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몇 차례의 회의 끝에 40개의 자조그룹은 '1년 동안 각각 약 5천 원씩을 모금해 매년 가장 어려운 두 명의 이웃을 도와주자'라는 마음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조그룹의 자발적 모금이 시작되었고, '예조해자 루후하' 그룹의 마리 클레르씨에게 첫 번째로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 40개의 자조그룹은 각각 그룹 명 뒤에 마을 이름을 더해 이름을 지었습니다.
 '트위테짐베레 나가소지': 우리 함께 발전해나가자 (나가소지 마을), '예조해자 루후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루후하 마을)



“집도 없고, 땅도 없이 자녀와 손주까지 돌보고 있지만, 그녀는 매우 열성적인 그룹원입니다.” -그룹 대표 무사비마나 프란신

마리 클레르씨는 남편과 사별 후 자식과 손주 총 여덟 식구의 생계를 홀로 짚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정 형편이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 남편이 참여하던 자조그룹에 참여하여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해 살던 집이 폭우로 인해 무너져 그녀의 가족은 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자조 그룹원들이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여러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모이자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 그룹원은 선뜻 땅을 내놓았고, 지역 내의 다른 NGO 단체에서는 양철 지붕을 지원했으며, 물품과 돈, 그리고 품을 들여 마리 클레르 씨의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촌나눔운동 사업에 참여하는 40개 자조그룹이 자금을 지원하여 시멘트와 벽돌 등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자조 그룹원은 물론이고, 지구촌나눔운동 사업소 직원과 현장까지 태워준 오토바이 택시기사까지. 총 46명이 마리 클레르씨를 위해 힘을 모아 진행했습니다.

5천 원. 누군가는 적은 돈으로 느낄 수 있지만, 이들에겐 절대 적지 않은 무게의 금액입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5천 원에 담긴 주민들의 마리 클레르씨를 위한 마음, 그리고 도움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인 것 같은데요. 이날이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그 과정을 바라보던 이들 모두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이끌어 온 ‘예조혜자 루후하’ 그룹의 프란신 대표에게 ‘자립’이 어떤 의미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 자립은 공동체의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 ”

대답했습니다. 이렇듯 자립은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 서는 것입니다. 나루바카 주민들이 보여준 나눔은 특별하고 거창한 것이 아닌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나눔입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데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각자가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정성을 모으니 놀랍게도 한 가정을 위한 집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마음으로 함께 쌓아 올린 이 집이 후원자님과 지구촌나눔운동이 그리던 건강한 자립의 모습이 아닐까요?



GCS News

본부 01.04.~01.13.

한국복지대학교 베트남 지구촌봉사단 파견

본부 01.09.~01.17.

울산대학교 베트남 지구촌봉사단 파견

미얀마 01.10.

IT 도서관 구축 현장 모니터링 진행

태국 01.10.

AED (심장제세동기) 기증식 개최

베트남 01.13.

하노이 고엽제 피해자 지원센터 정비사업 모니터링 진행

미얀마 01.15.

2019 요와마을 건기 영농자금대출 1차 모니터링 진행

베트남 01.15.

하노이 고엽제 피해자 지원센터 정비사업 완공식 개최

케냐 01.20.~01.21.

장애인식개선교육 자문회의 진행

<본부> 01.09.~01.17.

울산대학교 베트남 봉사단 파견



본부는 1월 9일부터 17일까지 울산대학교 지구촌 봉사단과 함께 베트남 남딘의 남반 유치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봉송아 물들이기, 가방과 쿠키 만들기 등 다양한 교육활동과 벽화를 그리고 꽃과 나무 심기로 분교의 화단을 조성하는 노력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서로가 준비한 공연을 펼치는 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파견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지구촌 시민으로서 활동하는 시간을 가졌다.

<태국> 01.10.

AED (심장제세동기) 기증식 개최



태국 사업소는 삼성생명과 함께 1월 10일 태국 방콕 시청에서 AED 기증식을 진행했다. 본 행사에는 방콕 시장과 부시장, 태국 삼성생명 관계자, 마을 지도자와 마을 보건 인력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앞으로 15대의 AED 기기를 방콕 시내 곳곳에 비치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제공하여 방콕 시민들이 심장질환 응급상황에 조기대응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르완다 01.22.

농업지도원 모임 진행

동티모르 01.27.

배움센터 독서프로그램 신규 학생자원 활동가 오리엔테이션 진행

미얀마 01.27.~01.31.

IT 도서관 타일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 착수

미얀마 01.31.

아마웅 마을 및 아체웨다우 마을 수익금 전액 이관 완료

태국 01.31.

1월 의수족 총 10개 제작 및 지원 완료

동티모르 02.

교사모임 신규 참여교사 선발

본부 02.03.~02.14.

2020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본부 국내교육 실시

본부 02.05.~02.06.

2020 KOICA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일반교육 실시

<베트남> 01.15.

고엽제 피해자 지원센터 정비사업 완공식



베트남 사업소는 1월 15일 하노이에 위치한 고엽제 피해자 지원센터 개보수 완공식을 개최했다. 완공식에는 경기도 평화협력국 민명섭 국장,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협회 회장 Mr.Nguyen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비를 완료한 사우나실, 호수 산책로 등을 둘러보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베트남 사업소는 센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고엽제 피해자협회와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본부> 02.05.~02.06.

2020 KOICA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일반교육 실시



본부는 2월 5일부터 6일까지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일반교육을 진행했다. 역량강화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본 교육은 국제개발협력과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기본 이론 지식과 NGO의 역할,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 및 평가 전반에 대한 강의들로 구성되었다. 교육에는 총 67명이 참석하였으며, 5명의 강사와 함께 진행했다.

베트남 02.10.~02.14.

하노이 고엽제 피해자 지원센터 정비사업 외부 전문가 사업평가 진행

케냐 02.10.~02.22.

장애인그룹 비즈니스 교육 실시

르완다 02.11.

협동조합 준비모임 KOPUINYA 운영위원회 회의 진행

베트남 02.13.

광찌성 저소득 45 농가 암소은행 자금 전달식 개최

몽골 02.14.

'자르갈란트 밀크' 협동조합 우유 품질 검사 승인 완료

태국 02.14.~02.24.

AED(심장제세동기) 사용법 및 CPR 교육 3회 실시

르완다 02.21.

협동조합 준비모임 KOABINYA 운영위원회 취임식 진행

동티모르 03.

소로모꼬, 오무까노, 차라노 그룹 소액대출 사업 종료식 진행

<케냐> 02.10.~02.22.**장애인그룹 비즈니스교육 진행**

케냐 사업소는 2월 10일부터 22일까지 총 2주 동안 장애인그룹을 대상으로 비즈니스교육을 실시했다. 소득증대 활동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우아신 기슈 카운티 내 10개 워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참여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해 기업을 정신, 사업관리, 회계, 제안서 작성 등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기초 지식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 02.13.**광찌성 저소득 45 농가 암소은행 자금전달식 개최**

베트남 사업소는 2월 13일 광찌성 깜로현에서 암소 지원을 위한 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난 10여 년간 베트남 북부에서 지원한 암소의 상환금 중 일부 활용하여 중부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암소은행 사업으로 총 45 빈곤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했다. 참여 농가는 약 80만 원을 지원받아 암소를 구매, 사육, 판매하게 된다. 36개월 이후 참여 농가가 상환하면, 사업소는 상환금으로 더 많은 빈곤 농가에 지속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몽골 03.

'자르갈란트 밀크' 우유 판매 시작

베트남 03.05.

KOICA 베트남 수공예 산업 가치사슬 강화사업 종료

케냐 03.07.

장애인식개선교육(Tarakwa Ward) 실시

르완다 03.09.~03.12.

농민교사 양성교육 실시

에티오피아 03.15.~03.19.

주민지도자양성교육 실시

태국 03.17.

2019~2020 문해교실 수료식 진행

케냐 03.28.

장애인식개선교육(Ainabkoi Ward) 실시

<르완다> 02.21.**협동조합 준비모임 코아비나 운영위원회 취임식 진행**

르완다 사업소는 2월 21일 나루바카의 코아비나(나루바카 채소, 과일 생산 농민 협동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취임식을 루후하 마을에서 개최했다. 협동조합 담당 공무원과 지구촌나눔운동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의 운영 방안과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취임 선서를 진행했다. 사업소는 코아비나가 성공적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완료하고, 지역 내에서 협업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길 기대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몽골> 03.**'자르갈란트 밀크' 우유 판매 시작**

몽골 사업소는 2월 14일 정부로부터 우유 품질 검사 결과 승인을 받아 3월부터 지역 내 소매점을 시작으로 우유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자르갈란트 밀크'는 몽골 내 대표 축산지역인 자르갈란트에서 활동 중인 영세 농가 협동조합 활동의 결과물이며 향후 우유 외 다양한 유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사업소와 협동조합은 고품질의 우유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더욱 많은 영세 농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Behind story

한국복지대 베트남 하노이 봉사단의 뒷이야기

2020년의 첫 번째 지구촌봉사단, 한국복지대학교 학생들과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지구촌봉사단은 한-베 장애인 재활센터와 누군가를 돕는다는 의미가 아닌 같이 배우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봉사에 임했는데요. 함께한 김민희 학생의 소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설레기도 하였지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참여를 결심했고, 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많았지만, 큰 사고 없이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베트남의 문화나 언어를 알아가는 과정이 즐거웠고, 무엇보다 처음으로 봉사하는 경험과 함께 보람을 얻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지구촌봉사단 활동을 통해 저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생생한 복지대 봉사단 이야기는 지구촌나눔운동 공식 블로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미얀마 시골 지역에서는 대가족 문화로 인해 가정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제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인식과 장비 모두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소득이 낮은 가난한 농민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자리가 끊기거나 생계를 유지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이 상황을 이겨내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이 외면받지 않도록 지구촌나눔운동과 함께해주세요.

미얀마 주민들을 위한
코로나 19 감염 예방 지원하기



